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15장(하나님의 크신사랑).....	다 같이
※ 교독문 98(아버지주일).....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579장(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차소리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찬양대
이달의찬양 “축복송”.....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이
*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누가복음2:48-51.....	한옥자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위대한 어머니 ”	
기도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송 199장(나의 사랑하는 책).....	다 같이
봉헌 (예배사역팀).....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강진숙권사	본문 / 사도행전 4:11,12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삼하13:34-39	시편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교회를 경험하는 삶 33과 “복음의 실현”	말씀 / 최세열목사	“부모로서의 다윗”	금요기도회	
축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금요일 오후8시	합심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오복실 안복선 노대성	다음주 기도	1부	박기환집사
	헌금위원	5월 박기환 정선례 김귀례 송영임	다음주 성경봉독	2부	김혜경권사
	6월 김기희 허웅 박현순 정재영	다음주	말은이	1부	말은이
	2부	오복실권사			
식당봉사	금주 루디아A 다음주 루디아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공영순권사		
헌신찬양	금주 예배사역팀	다음주	에스더회		

“위대한 어머니” / 누가복음 2:48-51

각 사람은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이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라는 이름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머니들은 모두 위대한 어머니이자 믿음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1. 마리아는 희생과 순종의 어머니입니다.

누가복음1:26-38절에는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이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였습니다. 마리아의 이 대답은 참 믿음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다는 것은 약혼이 파혼되는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결한 믿음의 징표입니다. 빌립보서2:6-8절은 예수님의 순종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희생과 순종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했고,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2. 마리아는 말씀을 간직한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천사가 말할 때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을 품었고, 누가복음 2:19절을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부모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근심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품고 살았기에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6:4-9절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그 민족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3.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간에도, 예베소교회에서 생을 마감하던 그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참 부모의 마음이자 참 믿음의 삶이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언제나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행1:14). 마리아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의 미래가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본을 따라 우리 모두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됩시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신앙주제5: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5/13 제3과 예수님이 분부하신 선교(마태복음 28장 16절-20절)

말씀 살피기

이 과의 성경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곧 '선교'를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 묵상

가롯 유다를 제외한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 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풀어 설명도 하시면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눅 24:36-40, 요 20:26-29).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 선교할 것을 분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선교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지상 명령임을 의미합니다. 선교는 임의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 곧 전 세계인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원동력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 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선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혜나 능력이나 언변이 부족해도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선교에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하시며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담대히 선교에 나서야 합니다.

선교할 때에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선교하는 사람과 함께하시어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선교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선교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1. 선교를 주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선교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제직회로 모입니다.
3. 다음 주일은 평신도참여예배로 에스더회가 함께 합니다. 에스더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든솔 선교활동을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월의 행사

- 5.6. 어린이주일
- 5.8. 어버이주일
- 5.12 해든솔 선교활동
- 5.20 평신도참여예배 - 에스더회
- 5.28-6.1 성령강림절 작정밤기도회(매일오후8시 소예배실)

향기로온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정선례 심복례 최승만 황경숙 박홍만 정정희 박상귀 공영순 이종열 박현순 박지영 김선주 원혜경
- 감사헌금 : 양석임 최임춘 김동현 김양순 이종열 박현순 양희임 김지환 심문자 박홍만 정정희 최정아 김울건 김혜경 (생일) 김동현 (부활)무명 (일천번제) 김동현 김지환 이병각 인민숙
- 건축헌금 :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엄정현 황경숙 정선례 이유자 사라희
- 비전씨앗 : 배영인 김울건 안채빈 이재승 이은혜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공영순	교 회	6	16,000			7	이영선	김홍영	교 회	4	13,000	30	김성희
2	정정희	김한순	교 회	2	8,000			8	김순남	오복실	여순애	4	42,000	100	정숙자
3	이준호	황경숙	교 회	4	17,000	50		9	김인순	이영란	교 회	2	6,000	100	박치국
4	김기희	김경희	교 회	3	8,000	36		10	장영분	노순영	교 회	5	30,000		
5	이문순	원혜경	교 회	5	15,000			계				35	155,000	316	
6	류종란	김애자	교 회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중학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1:00	도 서 실

어머니의 사랑

미국 뉴욕의 명물인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사람은 프랑스의 조각가 바톨디다. 그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인 여신상의 모델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흡족한 대상을 찾지 못했다. 그는 조각을 시작도 못한 채 허송세월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바로 이 표정이다. 어머니는 갓난아이를 고귀한 인격체로 조형하는 최고의 조각가다. 어머니의 표정 속에는 거룩한 안식과 희생의 미소가 담겨 있다"

결국 바톨디는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다.

어머니의 지붕

우리는 중국 쓰촨성에서 2008년도에 지진이 났을 때, 한 여인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잔여 더미가 자기의 아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아이의 지붕이 되어 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벽돌과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그 아기를 덮으려고 하니깐 엄마가 지붕이 돼서 그 모든 벽돌 더미들 그리고 건물의 부스러지는 철근 더미들을 막았습니다. 어머니의 지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은 젖을 먹이고 있던 자신의 어린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척추 뼈가 부러져서 끝내는 죽게 됩니다. 이 아이를 구해낸 구조대가 들어갔을 때 이 어머니의 휴대폰 액정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네가 만약 산다면, 이것만은 기억해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척추 뼈가 부러지더라도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쏟아지는 건물의 잔여들을 다 지탱하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원전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한다”

2018-19호 2018.5.13.

부활절 일곱째 주일 /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다면 누구라도 태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 없이는 누구라도 의롭다 인침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영혼의 근원이 되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평소에는 부모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다가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기도는 효자처럼 하려는 못된 이중적인 모습이 들키지나 않을까 조바심이 납니다. 잘 해드리지 못했는데도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효자라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지만 아직 우리는 어렵도 없습니다. 부모 생전 후회 없도록 잘 살피어드리는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자녀에게 인색하고 이기적인 부모가 되었나싶어 부끄럽습니다. 원하옵기는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받은 은혜보다 부모로서 베푸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 넓어져서 이웃에게까지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민주화와 바른 정치를 위해 삶을 바쳐 희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정성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사랑과 정의, 진실과 공평이 넘치며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155마일 휴전선이 사라지는 평화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답임특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정언태특사 지위:손효모 반주:김은영 최지현